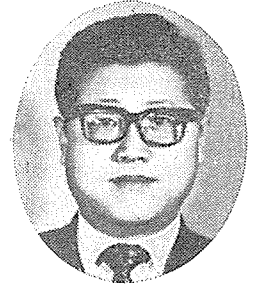


時代變化에 相應하는 學會

都市란 綜合的 構造를 지닌 生成物

學究熱 높이는 褒賞制度 마련



盧 隆 熙 會長

都市計劃의 經驗이 있는 先進諸國에서는 戰後의 復舊計劃을 戰爭中에 樹立하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있음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動亂의 傷處를 計劃의 治癒시키려는 努力을 하기에는 經驗과 時間이 없었던 것이 當時 우리들의 實情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時期에 計劃의 必要性을 主張하고 計劃의 方法을 提示하여 先驅者의 努力을 아끼지 않은 朱源前會長任께서 學會를 만들 수 있을 程度로 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歲月이 所要됐다.

때마침 經濟企劃에 눈이 뜬 政府를 向해 國土計劃의 必要性을 強調하여 그 法制化和 計劃의 立案에 成功하였고 市街地計劃令이라는 日政時의 殘滓物이 그대로 都市計劃의 根本法으로 되어 있어 마치 都市計劃이란 街路網整備나 土地利用의 規制에 그치는 것으로 認識해 오던 從來의 弊習을 一掃하고 基本計劃의 概念을 導入하여 “都市란” 施設物의 集合體가 아닌 綜合的인 構造를 지닌 生成物이라는 것을 自覺케 하였다.

이 分野의 人材養成을 위한 教育制度의 新設에 積極 努力하여 많은 專門家를 輩出케 하였을 뿐 아니라 國際적으로도 IFHP, ASPO, EAROPH 등 여러 國際會議機構들과 交流關係를 맺어 71년에는 國際會議를 서울에 誘致, 學會가 主管할 程度까지 發展하여 왔다.

우리 學會의 傳統과 業績을 이어받은 本人으로서

첫째 專門家의 集團으로서의 眞面目을 살릴 수

있도록 國內外에서 都市 및 地域計劃分野를 專攻한 新人들을 會員으로 받아들여겠다.

이것은 創立當時 旣成 學問分野에 깊숙이 關係하던 都市 및 地域計劃分野에도 關心을 갖았던 人士들의 集合, 即 “메타디씨폴렌”의 人的 構成으로 發足한 學會가 보다 뚜렷한 專門性을 지니는 契機를 찾게 되고 時代變化에 相應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새 구실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會員相互間의 研究, 情報交換의 場으로서 꾸며나가며 한편으로는 學術誌의 發刊, 研究發表와 共同討論會의 主權等을 통해서 相互間의 發展을 激勵하고 한편으로는 專門家로서의 地位를 社會적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注力하고자 한다.

셋째로는 計劃分野에 功勞가 크신 分의 業績을 길이 길이 記念할 수 있는 制度的인 마련과 이 分野의 젊은 學徒들에게 學究熱을 드높이는 褒賞制度를 確保하는데 努力하겠다.

勿論 이러한 活動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經費가 들게 마련이다.

每年 會員들이 獻出하는 會費로서는 經常費充當에도 未達되는 形便이므로 學會活動과 對應되지 못하는 經常費는 節約하면서 우리 分野의 教材나 副教材의 發刊을 통한 印稅收入과 技術諮問을 통한 團體會員의 會費로서 正常的인 運營의 터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